

이슈

2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230호



영화 '기생충'

기생충, 2개 부문 예비후보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발짝

장편국영화·주제가상 예비후보 선정 내년 1월 13일 주요 부문 등 확정 공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예상대로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17일 '기생충'을 장편국영화(외국어영화상)와 주제가상 부문의 예비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장편국영화 예비후보 진출은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 이후 한국영화로는 두 번째, 주제가상 예비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에 오른 주제가는 봉준호 감독이 가사를 쓰고 주연 최우식이 부른 '소주 한 잔'이다.

내년 2월9일(현지시간)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13일 확정된다. 17일 먼저 공개된 예비후보 대상은 장편국영화, 다큐멘터리 등 9개 부문이다.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이들 예비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동시에 작품상·감독상·남녀주연상 등 주요 부문 후보를 확정해 1월13일 전부 공개한다.

'기생충'은 올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직후부터 한국영화로는 처음 미국 아카데미 장편국영화 최종후보 진출이 예상돼 왔다. 10월 중순 북미 개봉 이후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뉴욕타임즈 등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감독상과 각본상 등 주요 후보 진출 가능성을 앞 다투어 예측했다. 이에 힘입어 '기생충'은 현재 미국서 전무후무한 수상 기록도 써 가고 있다.

'기생충'은 이달 8일 LA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을 시작으로 토론토비평가협회, 전미비평가협회, 시카고영화비평가협회, 샌프란시스코영화비평가협회에서 잇따라 감독상·각본상·외국어영화상 등을 씩씩이 하고 있다. 주요 비평가협회상을 휩쓴 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감독상·각본상·외국어영화상 후보 진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제가상을 넘보는 '소주 한 잔' 처럼 반전의 후보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부문이든, 단 하나만 올라도 한국영화 100년사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전초전은 내년 1월5일 열리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다. 아카데미와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에 '기생충'은 감독상·각본상·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역시 한국영화로는 처음이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베트남에 '축구의 기적' 선사한 박항서 감독, 더 큰 도전을 이야기하다



'발딩크'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2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14일 한국을 찾았다. 22일까지 동계전지훈련을 갖는 박 감독은 17일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해 취재진 앞에 섰다. "내 축구인생 총장치는 베트남"이라고 밝힌 박 감독이 환히 웃고 있다. 통영 I 뉴시스

박항서 감독(60)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의 폭발적인 선전에 한국축구도 뜨거웠다.

베트남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통합 지휘봉을 잡은 2017년 말, "1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임한 여정이 벌써 3년이 흘렀다. 그 배경에 출전하는 대회마다 결실을 맺는 퍼포먼스가 있다.

양 국의 관계도 한층 돈독해졌다. 베트남의 공식경기마다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고, 국내 팬들은 베트남 박항서호의 선전에 아낌없는 갈채와 환호를 보내며 태극전사들이 부럽지 않은 애정을 보인다. 최근 필리핀에서 끝난 2019 동남아시아게임(SEA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베트남 22세 이하(U-22) 대표팀이 14일 방한했다. 22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진행될 동계전지훈련을 위한 이다. 17일 오픈 트레이닝에 나선 박 감독은 "날 믿고 따라준 좋은 선수들을 만나 기대 이상의 성취를 얻었다.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할 때"라며 활짝 웃었다.

●계속될 위대한 도전

예상을 뒤집고 준우승한 2018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박 감독의 인생을 바꿨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10년 만에 아세안축구

1년만 버티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기쁘고 과제만 남는 게 '감독의 삶'

올림픽 티켓 걸린 U-23 챔피언십

한국이 조1위 할테니 우리도 1위

한국대표팀 사령탑? 난 생각 없어



연맹(AFF) 스즈키컵 정상에 섰고,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8강에 이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선두를 질주 중이다.

호성적의 비결은 '스텝 바이 스텝'. 박 감독은 먼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 바로 앞의 고지를 향해 묵묵히 달린다. "'1년만 버티자'가 '계약기간만 채우자'로 바뀌었다. 2018년을 마치며 '2019년은 또 어찌지' 싶었는데 나를 결실을 얻었다."

기쁨도 오래 가져가지 않는다. "과거는 추억이 되고 과제만 남는다. 도전이 격정되나 그게 감독의 삶"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시선은 2020도쿄올림픽 티켓이 걸린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2020 AFC U-23 챔피언십을 향한다.

박 감독은 조별리그 통과를 우선 목표로 정했다. 예선 순위가 1·2위로 엇갈리면 김학범 감독의 한국과 8강에서 조우할 수 있다는 물음에 "한국이 조 1위를 할 테니, 우리도 1위를 노려야 한다"는 말로 살짝 피해간 그는 "예선 통과가 우선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인생의 총장치는 베트남

베트남의 놀라운 비상은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다.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가가 폭등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49)과 접촉 중이다.

박 감독은 '질천 후배'에 파산한 조언을 건넸다. "제안이 곧 능력을 의미한다. 해외는 어디든 어렵다. 언어와 문화, 정서 모두 다르다. 급전도 중요하나 본인이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으면 한다."

이날 박 감독에게 '한국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물음이 다시 던져졌다. 답은 분명했다. "분명히 말하자면 한국에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들이 많다. 내게 요청할 리 없지만 (오더라도) 생각 없다"던 그는 "내 축구인생은 베트남에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영 I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지나친 관심 차단·한국식 바비큐 파티...정신도 육체도 '힐링'

태국대회 위해 한국을 찾은 이유 맞춤형 훈련에 컨디션 빨리 회복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은 14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통영공설운동장과 통영실내체육관을 오가며 22일까지 이어질 이번 훈련의 초점은 회복과 재충전이다.

최근 필리핀에서 끝난 2019동남아시아게임(SEA게임)에서 60년 만에 정상에 오른 베트남 U-22 대표팀은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출전이다.

그런데 고온다습한 태국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굳이 추운 한국을 찾는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박 감독은 '익숙한 곳'을 찾았고, K리그1 사령탑 시절에도 종종 캠프를 차린 통영을 선택했다. 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2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베트남은 22일까지 국내에서 훈련한다. 통영 I 뉴시스

국 훈련도 고민해봤지만 끊임없는 외부의 관심을 차단하고, 행사 참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선택은 나쁘지 않다. ▲SEA게임 주력멤버 ▲출전시간이 짧은 인원 ▲부상자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각각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자 눈에 띄게 컨디션이 살아났다. 푸른 잔디가 깔린 훈련 환경도 최적의 조건을 자랑한다.

음식도 만족스럽다. 선수단은 매 끼니

를 한식으로 해결한다. 김치전골과 된장찌개, 불판에 고기를 굽는 한국식 바비큐를 즐긴다. 부임 후 제자들의 체력 향상에 많은 공을 들인 박 감독은 고단백 영양섭취를 주문했다. 그는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통영 캠프를 마친 뒤 호치민에서 최종 담금질을 하고 태국으로 향할 계획이다.

통영 I 남정현 기자

유력매체들이 압축한 류현진 행선지



누가 과물을 품을까. 프리에이전트(FA) 류현진의 거취에 미 현지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일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몸값이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34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17일(한국시간) 나왔다. AP뉴시스

1 다저스·토론토·LAA 2 몸값 4년 8000만달러 3 연봉은 범가너보다 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의 거취에 대한 전망이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행선지로는 원 소속팀 LA 다저스를 비롯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에인절스가 비중 있게 언급됐다. 최대 관건 중 하나인 몸값 역시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34억 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이 유력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MLB닷컴은 17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의 동향을 추적한 2건의 기사를 통해 "토론토와 다저스가 류현진 영입에 적극적"이며, "예상 계약액은 4년 800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ESPN은 "지난 10년간 토론토가 FA에게 4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은 이번뿐이었다"며 "류현진이 에인절스와 계약해 LA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MLB닷컴은 '코리 클루버와 매디슨 범가너의 이동 이후 류현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토론토가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클루버와 범가너를 놓친 LA 다저스 역시 훨씬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하루 전 FA 좌완투수 범가너가 5년 총액 8500만 달러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하고, 사이영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우완투수 클루버가 트레이드를 통해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한 직후 나온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한 성격이 짙다.

다만 MLB닷컴은 "토론토는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야수진이 강점이다. 하지만 2021시즌 이후 경쟁팀으로 거듭나려면 선발진 강화가 결정적 요소"라며 "내년 시즌 후 FA 시장의 선발투수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1년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의 움직임에 좀더 주목할 것이다.

'류현진은 범가너의 계약을 넘어서 수 있을까'라는 MLB닷컴의 추가 보도 또한 의미심장하다. 칼럼니스트 켄 로젠탈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류현진은 범가너의 연평균 1700만 달러를 능가해 4년 8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요지다. 그 근거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류현진은 6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71, 범가너는 7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57을 올린 성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